

# 2022학년도 제1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용)



- ▣ 일 자 : 2022. 12. 08.(목) 오후 2시 30분
- ▣ 장 소 : 양캠퍼스 화상회의실[화상회의]

	간 사	의 장
결 재		

명 지 대 학 교

# 2022학년도 제1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공개용)

■ 일 시 : 2022. 12. 08.(목) 14:30 ~ 15:15

■ 장 소 : 양캠퍼스 화상회의실[화상회의]

■ 참석평의원 : 김진환, 김용달, 이대욱, 최정현, 엄세빈, 변상범, 이순식  
(이상 7명)

■ 불참평의원 : 이상현, 이정현, 최현선, 유석희(이상 4명)

■ 성 원 : 재적평의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됨.

■ 안 건 : 명지발전에 관한 사항(통합)

### ■ 심의내용

- 위원장 : 평의원들에게 2022학년도 10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에게 성원 보고 요청
- 간사 : 재적평의원 11명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함
- 위원장 : 학교의 미래와 관련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평의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 상정 안건이 명지 발전에 관한 사항 중 통합과 통합이 있게 된 회생 문제와 관련하여 평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내일 통합추진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하는 선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000 평의원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이 어려웠음. 현재 학내 분위기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람
- 000 평의원
  - 총학생회를 포함 대학구성원을 대표하는 5개 조직이 이번 통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수용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음
  - 인문캠퍼스 사학과는 미술사학과와 통합이 되면서 존속이 되는 분위기인데 폐과가 사실상 명시된 철학과는 오늘 인문대 학생회장과 철학과 학생회장이 기획실장님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전달해 주기로 하였음
  - 철학과에서는 학부제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고, 철학과를 살리려는 분위기임. 철학과 학생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폐과는 안된다는 스탠스를 보여 주고 있음
- 위원장 : 다른 캠퍼스 학내 분위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람
- 000 평의원
  - 이번 통합안은 줄속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5개 조직이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무시가 되었다고 판단됨. 5개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는 말이 되지 않기에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초기 자연캠퍼스에서는 자과대와 예체대에서 클래식 음악과 바둑학과가 폐

- 과 또는 폐과에 준하는 과였는데 화학과, 물리학과, 클래식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사학과와 마찬가지로 변형되어 살아남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수학과와 바둑학과의 폐과 또는 폐과에 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행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 위원장 : 000 평의원님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000 평의원
    - 긴급 회의라고 해서 사전에 어떤 내용의 회의인지 정보를 못 듣고 참석함. 000 평의원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 학과 통폐합 문제가 오늘 주 이슈인 것 같음. 총동문회는 모든 학과가 포함된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과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낼 수는 없음
    - 다만 큰 틀에서 학교 회생을 위해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합과정에서 학과 통폐합 문제가 나온 것 같음. 학과 통폐합이나 학과 이름 변경되면서 존속되는 학과가 있고 학과 자체가 없어질 수 있음. 경쟁력이 없는 학과가 없어지는 것은 타대학에서도 늘 있어왔으나 통폐합 관련해서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김. 회생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를 거치야 함
    - 파급 효과가 학교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파급 효과가 많을 것임.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는데 관심이 좀 있음. 바둑관련 카페에서 어제 기사를 봤고,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반대 청원서도 올라와서 오늘 회의 안건을 예상하고 있었음. 우리나라에 바둑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바둑 학과가 폐과되면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고등학교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렇게 파급력이 큰 이슈를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함
  - 위원장 : 000 평의원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하는 동안 학교 대학본부 측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간사님께서 원래 평의원으로 있었으나 공석으로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직원 평의원 추천 답변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함
  - 간사 : 전달하겠음
  - 위원장 : 000 평의원 의견 부탁드립니다
  - 000 평의원
    - 회생의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전문대와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과 5개 조직 누구도 반대할 적이 없음. 우리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재정적인 절약을 위해서 올해 신청하는 부분과 그러다보니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까지 다 이해함
    - 문제는 폐과나 폐과에 준하는 것의 불가피성임. 과연 이게 불가피한 일인지를 성명서에도 문제 제기했고, 알아본 바로는 꼭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짐. 학교 측도 그렇게 이야기하였음

-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학교 발전을 위해 어떤 특정 학과를 줄이거나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절차가 필요함. 명지대학교에는 폐과나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음. 통합하는데 무슨 규정이나고 말씀하시겠지만 모든 게 법률과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과 규정 자체가 명지대학교에는 존재하지 않음
- 규정을 떠나서 명확한 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가 5개 단체의 입장이었음
- 올해는 임단협이 예정되어있었지만 회생과 통합이 있기 때문에 임단협을 연기하였음. 서로의 요구 사항에서 쟁점이 다르면 약간의 부딪침도 있고 의견이 외부나 언론 등 밖으로 표출되기도 함. 학교 측에서 올해만큼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였기에 총회를 통해 내년 회생 절차 개시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잠정적인 의견을 집행부 대위원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연기하고 있음. 지금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폐과 문제를 들고 나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폐과나 폐과에 준하는 것들은 반발할 거고 이에 따라서 언론에도 나오게 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음
- 교육부 신청의 필수 조건이라면 더 설득해야겠지만 필수 조건도 아니고 이전 신청했던 대부분의 대학들은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없을 경우 폐과시키지 않고 그대로 신청을 했음. 학교가 임의로 폐과한 경우도 집행정치가처분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서 또 살아나면서 잡음만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함
- 원래 월요일 통추위 결정일이었는데 내일로 연기한 상태고 지금 대부분의 평의원들이 통추위 위원임. 통추위에 대학평의원회 이름으로 한 번 학교 내부 구성원의 혼란이 야기되는 학사구조 개편안을 최소화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사 구조 개편안을 마련해서 신청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제안함
- 위원장 : 요약하면 통합 추진을 하는 근원적인 문제인 회생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지적해 주시었고, 의견 감사함. OOO 평의원 의견 부탁함
- OOO 평의원 : 사실 오늘 긴급 회의 안건은 들어보지는 못했음. 잘 경청해서 학교 발전을 고민하고 판단하겠음
- 위원장
  -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내용들을 전달 못한 것 의장으로서 사과드림
  - 현재 학교 내에서 있는 구성원들 교수, 직원, 학생들 대표되는 5개 조직이 계속해서 학교 측에 전달하고 있듯이, 통추위 안이 너무 졸속이고 회생을 위해서 통합안을 올해까지 제출하는 것은 찬성함. 그렇지만 문제를 야기한 책임은 법인과 대학 측에 있는데 회생은 일부 학과들이 보는 것들에 대해서

는 반대를 함. 즉, 폐과나 폐과에 준하는 학과 통합 안에는 반대하고 있음  
 - 오늘 회의 결과를 내일 통추위가 열리기 전에 통추위에 전달할 것을 제안함  
 회의록을 긴급하게 만들어서 내일 안으로 전달하고 000 평의원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내부 구성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거가 마련된 안을 통합 안  
 으로 확정하기를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전달을 했으면 좋겠음

■ 000 평의원

- 12명이 평의원 정족수인데, 오늘 교수님들이 대부분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음. 회의를 하면서 정족수가 되고 참석한 사람들 의견만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음. 참석을 못하셨더라도 서면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오늘 회의의 취지를 얘기를 하고 동의받아서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사전에 회의 내용을 고지해서 평의원들이 고민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함. 특히 동문회는 13만 동문을 대표하고 사무처가 있지만,  
 회의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 것이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지  
 의견을 취합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함. 회의에서 즉석으로 개인 혼자  
 책임지고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없음

- 폐과는 IMF때 수 많은 사람들을 구조조정하는 시절을 거쳐 구조조정도 해  
 봤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음. 학과도 마찬가지임

- 학과의 이름이 변경되면 동문들이 모이지를 못함. 입학했을 때 요업공학과  
 가 있었는데 세라믹학과로 바뀌고 5~6번 바뀌었음. 그 학과는 뭉치지 못함.  
 시대가 변하고 학과명이 바뀌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학과가 평가되  
 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임. 시대가 변한다 해도 철학과는 기초라고 알고  
 있음. 모태가 되는 학과의 폐과 문제까지도 거론될 정도로 사회가 변했는가  
 안타까움. 학과가 회생을 위해서 절치부심을 해야하지만 기초학문은 살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함

- 바둑학과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학과로, 세계적으로 명지대학교는  
 모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명지대학교 바둑학과를 아는 사람들이 있음. 세계  
 적으로 유일무이한 학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반면에 알파고 이후 바둑계가 많이 변해서 학생들이 바둑 배우러 올  
 것인지 모르겠음. 학생이 없는 학과가 존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가혹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긴함.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부각하고  
 싶음. 예를 들어 안경학과 같은 예전에는 몰랐던 학과들이 다른 대학교에  
 있기도 함. 어느 대학 안경학과라고, 사람들이 기억을 함.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학과를 없애면서까지 회생을 해야하는가라고 생각함

■ 위원장 : 회생을 강요하는 안들을 계속해서 학교 측에서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을 하자는 의견들을 내  
 주시고 계심. 내일 통추위 회의에서 안건이 통과하면 다시 바로잡기가 정말

어려울 것임. 일단 우리는 이 안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와 관련된 구성원 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대학평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우려를 표하니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으면 함. 이 부분에 대해 다른 평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음

- 000 평의원 : 동의함
- 위원장 : 안건을 동의할지 폐기할지 여부를 다른 평의원들에게 물음
- 000 평의원 : 통추위에 평의회 논의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함. 동의함
- 000 평의원 : 폐과는 학생들에게 민감한 부분임. 폐과 또는 폐과에 준하는 것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확한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가지고 구성원들과도 소통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학교에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000 평의원 : 평의원님들 말씀에 동의함. 내일 통추위에서 표결이나 과정을 통해서 현재 학사 구조법안이 개편이 되면 12월 31일까지 신청서 제출이기 때문에 학칙에 반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음. 학칙에 반영이 되면 대학 평의회를 또 열게 되어있음. 간사에게 과정을 다시 확인함.
- 간사 : 신청 단계에서 학칙 개정 되는 건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정 사항이 발생되면서 내용들이 오고 가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규정 개정을 하거나 또는 다른 모든 규정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음
- 000 평의원 : 다음 주에 원래 평의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는 이 통합안이 올라오지는 않는지 간사에게 질의함
- 간사 : 신청서에 교무위원회, 대학평의회의 의견 수렴이 들어감. 내일 통추위에서 신청서 내용을 검토할 예정임. 교무위원회에서 신청서와 제출에 대한 부분 내용을 확인하고, 대학평의회에서 또 내용을 검토함
- 000 평의원
  - 통추위가 교무위원들, 교원, 학생, 직원 대표로 구성되어 있음. 위원이 계속 겹침. 문제는 구성원 단체는 폐과 및 폐과에 준하는 것을 제외한 학사 구조 개편안을 12월까지 제출하는 것은 동의하며 폐과에 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기에, 의견 전달 없이 내일 통추위에서 결정되고 교무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주 대학평의회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임. 통추위에 지난 번 구성원이 냈던 의견서보다는 조금 완화된 의견서를 작성해서 낸다는 거에 다들 동의하신 걸로 이해가 됨
  - 학교 측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은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알고 있음. 처음에 9개 학과 폐과 안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4개 정도로 바뀜. 이후 입장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기에, 최종안은 몇 개과가 남을지는 모르겠으나 학교도 폐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과나 폐과에 준하는 것이 통합의 결정적인 필수 요건이 아닌 이상 이번에는 그걸 빼고 신청을 하고 이 후

시간을 두고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고 하도록 권고하는 안에 찬성함

- 위원장 : 오늘 회의 내용을 내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간사에게 질의함
- 간사 : 회의록을 작성하고 넘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함. 000 평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별도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음
- 위원장 : 의견서를 작성해서 수렴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질의함
- 간사 : 작성해서 주시면 메일로 발송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음
- 000 평의원 : 000 평의원이나 000 평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이야기했던 취지는 회생과 통합을 위해서 학사구조 개편안은 찬성하고 12월까지 제출하는 것에 다 찬성함. 내용 중에 폐과와 폐과에 준하는 부분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지 말고 1~2년이라도 시간을 두고 명확한 절차적인 기준 지표들을 제시한 이후에 전체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서 하자라는 게 요구했던 사항임. 그리고 그런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자고 다들 공감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해도 아마 큰 이견은 없으실 것 같음. 이 정도 내용으로 의장님께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빠르게 회람을 하고 간사들께 전달해서 내일 통추위 전에 학교 측에 전달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을 제안함
- 위원장 : 000 의원의 의견을 동의하는지 물어봄. 통추위 자체가 내부 구성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000 평의원님은 통추위 위원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니 000 평의원만 동의를 해주시면 이대로 진행하겠음
- 000 평의원 : 000 평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폐과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느냐 안느냐인 것 같음. 내용에 동의를 하겠음
- 위원장 : 폐과를 반대한다는데에 동의하시는 것인지 물음
- 000 평의원 : 폐과는 없어야 함
- 위원장 : 폐과를 반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것을 확인. 000 평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음
- 000 평의원 : 폐과가 회생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미리 시간을 두고 유효 기간을 두고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됨
- 위원장 : 전원 동의한 걸로 알고 통추위에 전달할 수 있는 문건을 만들어서 회람 후에 대학평의원회 이름으로 전달하겠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람
- 000 평의원 : 오늘 여기 교수님들이 아무도 안 계심. 민감한 자리 피하고 싶어서 참석을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긴급 회의라고 하면 참석을 해야 함. 다 일일이 전화드리고 취지를 설명드리고 꼭 참석해서 도와주십시오 읍소를 해야 오심. 이런 문제들을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렇게 회의를 하기 보다는 교수님들한테도 다 취지를 설명드리고 교수님들이 꼭 참석해 주셔야 함. 통폐합에 해당 안 되시는 교수님들이니까 참석을 안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듬

- 위원장 : 000 평의원님 말씀에 동의함. 000 평의원님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셔서, 실제 회의를 줌으로도 생각을 해봤음. 000 평의원님께서서는 이런 긴급 회의도 제안하시고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분란 같은 것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전달을 하고 계셨음. 화상회의를 하면서 동시에 줌을 옆에 켜놓고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참석을 못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000 평의원님의 의견을 교원 세 분 평의원님께도 전달하겠음.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으로 제10차 대학 평의회를 회의를 마치겠음

2022. 12. 08.

작 성 자 : 기획예산팀장 안 경 훈 ㉠